

교회 3대 목표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주간충헌

• 교회성구 •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
나이다(시 18:1)"

• 이주일의 말씀 •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마 5장 3절)

발행인 / 이종윤, 편집인 / 윤명식, 편집국장 / 손경수 발행소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헌교회 「주간충헌」 신문사 소석관 112호 (135-0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Published by Choong Hyun Presbyterian Church, Seoul, Korea. 대표전화 552-8200, 팩시밀리 552-2925, 편집국 직통전화 562-3498 • 사서함 영동우체국 1896호

파키스탄 평신도 의료선교사 파송예배

지난 26일, 본당에서 파송식, 16명이 선교지에서 팀선교로 활약

충헌교회는 파키스탄 평신도 의료선교사 파송예배를 지난 11월 26일(주일) 오후 7시 본당에서 가졌다.

이날 파송예배는 김영구목사 사회로 진이영세장로(충헌세계선교회 부회장)의 기도, 성경 사도행전 1장1~8절 봉독후 호산찬양대, 크로마하프연주단의 찬양이 있었

한국대학생선교회 대표인 김준곤목사가 "말론적인 선교운동"이란 제목으로 설교했

한국대학생선교회 정인수간사의 경과보고, 이종윤목사의 파송장 수여, 윤명식장로(회서기)와 이영세장로의 기념품 증정, 파키스탄의료선교회 이명수장로의 권면, 파송받

팀장 선우형식선교사의 답사, 그리고 이종윤목사 축도로 마쳤다.
파송받은 선교사들은 다음과 같다.
▲ 선우형식선교사(1946년 4월 20일생) 최경순(부인), 선우미경(딸)
선우형식선교사는 고려의대를 졸업하고 서안복음병원 비뇨기과 과장을 역임했으며, 홍진대학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이번 선교팀의 팀장이다.

▲ 조재선선교사(1949년 10월 8일생) 강옥희(부인), 완호·태호(아들)
조재선선교사는 조선의대를 졸업하고, 메리놀의원 원장을 역임했다.

▲ 좌원희선교사(27세)
국립의료원 간호전문대 졸업/ 간호사
▲ 김탁균선교사(26세)
광주보건전문대학 졸업/ 임상병리과 기사

▲ 최혜경선교사(27세)
지산보건전문대 졸업/ 방사선과 기사
▲ 김귀자선교사(31세)
춘해간호전문대 졸업/ 간호사 및 조산사

▲ 조경련선교사(26세)
춘해간호전문대 졸업/ 간호사
▲ 배은희선교사(26세)
춘해간호전문대 졸업/ 간호사

▲ 장원기선교사(28세)
상지대학 사회사업학과 졸업/ 한국대학생선교회 대학부 전임간사
한편 파송받은 선교사중 한분인 김귀자선교사의 선교사 결심을 하게 된 동기를 신앙고백 차원에서 들어보자.

“저는 경주에서 태어나 어머니의 믿음으로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늘 기도하곤 했습니다. 중학교 때 믿지않는 친구가 병원에서 불친절한 의료진들을 말할 때 마음이 아파 주님께 저를 좋은 기독교간호사가 되어 빛과 소금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했던 대로 간호사가 되게 하였고 중환자실에 근무하면서 성경 말씀을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었고, 환자들에게 영원한 생명되신 그리스도를 전해주어야겠다는 강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후 제 인생에서 저의 모든 삶을 투자하고도 후회되지 않는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부산소속 아가페 의료선교단을 만났고, 동종의료선교를 통해 선교 비전을 구체화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결혼해서, 선교지로 가겠다고 고집하던 제가 하나님 우선순위로 마음을 바꾸어 지금은 파키스탄으로 가겠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큰 평안을 주셨습니다.”



▲ 파키스탄 평신도 의료선교사 파송예배광경



▲ 파송장 전달하는 이종윤목사

며, 그들이 떠나자 문을 닫게된 병원이다. 파송받은 선교사들은 다음과 같다.

▲ 선우형식선교사(1946년 4월 20일생) 최경순(부인), 선우미경(딸)

선우형식선교사는 고려의대를 졸업하고 서안복음병원 비뇨기과 과장을 역임했으며, 홍진대학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이번 선교팀의 팀장이다.

▲ 조재선선교사(1949년 10월 8일생) 강옥희(부인), 완호·태호(아들)

조재선선교사는 조선의대를 졸업하고, 메리놀의원 원장을 역임했다.

▲ 좌원희선교사(27세) 국립의료원 간호전문대 졸업/ 간호사

▲ 김탁균선교사(26세) 광주보건전문대학 졸업/ 임상병리과 기사

▲ 최혜경선교사(27세) 지산보건전문대 졸업/ 방사선과 기사

▲ 김귀자선교사(31세) 춘해간호전문대 졸업/ 간호사 및 조산사

▲ 조경련선교사(26세) 춘해간호전문대 졸업/ 간호사

▲ 배은희선교사(26세) 춘해간호전문대 졸업/ 간호사

▲ 장원기선교사(28세) 상지대학 사회사업학과 졸업/ 한국대학생선교회 대학부 전임간사

한편 파송받은 선교사중 한분인 김귀자선교사의 선교사 결심을 하게 된 동기를 신앙고백 차원에서 들어보자.

“저는 경주에서 태어나 어머니의 믿음으로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늘 기도하곤 했습니다. 중학교 때 믿지않는 친구가 병원에서 불친절한 의료진들을 말할 때 마음이 아파 주님께 저를 좋은 기독교간호사가 되어 빛과 소금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했던 대로 간호사가 되게 하였고 중환자실에 근무하면서 성경 말씀을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었고, 환자들에게 영원한 생명되신 그리스도를 전해주어야겠다는 강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후 제 인생에서 저의 모든 삶을 투자하고도 후회되지 않는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부산소속 아가페 의료선교단을 만났고, 동종의료선교를 통해 선교 비전을 구체화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결혼해서, 선교지로 가겠다고 고집하던 제가 하나님 우선순위로 마음을 바꾸어 지금은 파키스탄으로 가겠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큰 평안을 주셨습니다.”

“저는 경주에서 태어나 어머니의 믿음으로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늘 기도하곤 했습니다. 중학교 때 믿지않는 친구가 병원에서 불친절한 의료진들을 말할 때 마음이 아파 주님께 저를 좋은 기독교간호사가 되어 빛과 소금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했던 대로 간호사가 되게 하였고 중환자실에 근무하면서 성경 말씀을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었고, 환자들에게 영원한 생명되신 그리스도를 전해주어야겠다는 강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후 제 인생에서 저의 모든 삶을 투자하고도 후회되지 않는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부산소속 아가페 의료선교단을 만났고, 동종의료선교를 통해 선교 비전을 구체화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결혼해서, 선교지로 가겠다고 고집하던 제가 하나님 우선순위로 마음을 바꾸어 지금은 파키스탄으로 가겠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큰 평안을 주셨습니다.”

“저는 경주에서 태어나 어머니의 믿음으로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늘 기도하곤 했습니다. 중학교 때 믿지않는 친구가 병원에서 불친절한 의료진들을 말할 때 마음이 아파 주님께 저를 좋은 기독교간호사가 되어 빛과 소금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했었습니다.

“칠레선교” 재정협력 시급

목회자 훈련과 지도자 양성 위한 신학교 설립비로

칠레주재 유재일선교사는 지난 11월 14일 충헌세계 선교회장 앞으로 보낸 칠레선교부지 매입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첨부했

칠레교회의 목회자 훈련 및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회개혁을 목적으로 설립하려는 신학교 부지매입에 재정적인 협력이 시급함을 호소하면서 충헌교회 성도들이 매일 기도하

시간에 칠레선교부를 기억해 달라고 호소한다. 공한 일부를 소개해 본다.

“칠레선교부의 선교전략의 하나로 칠레목자를 이용한 개척교회 사업의 많은 단점과 본적인 선교발전을 위하여 칠레목회자 교육을 통한 칠레교회 개혁과 칠레장로교도자 양성을 위해 신학교 설립이 불가피하

대지를 구입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일은 칠레장로교총회 산하 신학교가 없으므로 공동사업으로 하여 지도자양성을 위해 개교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1학년 학생은 30명으로 하고 수업료전액을 장학금으로 지불해서 훈련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제 말씀드리려는 일은 계급까지 추진하는 개척사업 못지않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깨닫습니다.

또한 이 일은 충헌세계선교회의 특별한 협력과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은행대부금 2,296불이 2,800불이 되었으며 수리비도 5,000불 이상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 저녁모임 가져 영어예배부 주관으로

영어예배부(부장/ 경하우장로, 지도/ 마일

수목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기념축하 저녁모임을 지난 11월 24일 오후 7시 만나홀에서 가졌다.

이날 모임엔 이종윤 위임목사를 비롯하여 영어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내·외국인 및 영어주일학교 학생, 그리고 학부모 1백여명

이 참석했다. 1부 시간에는 감사예배를 드리고 부패식식단을 함께 들면서 지난 10월에 개교한 영어주일학교,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학생들의 영어성경암송, 찬양, 기악연주 등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 영어예배부 주관 추수감사 저녁모임

이종윤위임목사의 수요일예배 성경강해 시리즈 ⑦



본문 / 요 6:66-68

예수님을 따라오던 많은 사람들이 그가 하늘로 부터 온 떡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자마자 놀라서 더이상 이분을 따라가다가는 큰 일 나겠다고 판단을 하고 한사람 두사람 자기의 갈길로 돌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종당에는 나를 떠나갈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오늘 이 질문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여전히 질문되는 중요한 물음입니다.

1.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에 담겨진 진리가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1)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속히 떠나라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결국에 가서는 배신을 할 사람들이기에 그리스도께서는 '갈 수밖에 없는 너희라면 일찌기 가거라. 나를 배신할 바에는 빨리 떠나라'고 하는 음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이 가롯 유다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가롯 유다의 심정은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저분이 내가 지금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가를 아시는 것인가' 아마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는 직분도 갖고 있고 위치도 차지하고 있었지만 그에게 없는 것 하나는 거듭난 체험입니다.

"역경과 핍박, 손해가 와도 진리 안에서 살아야 한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오기는 왔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체험이 없는 사람은 언젠가는 바람부는 날 잎파리 떨어지듯 반드시 떨어질 날이 올 것입니다.

옛사람을 아직도 그리워 하고 있는 사람 추풍낙엽처럼 떨어질 날이 올 것이라는 이 말씀을 듣고 가롯 유다는 몹시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두번째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이 사람은 주님을 죽는 자리에까지 따라가겠다고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마 26:35). '주여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당신과 함께 죽는 자리에까지라도 당신을 따라가며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고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는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는 사람에 속할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거듭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바로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잘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는 자리에 가득히 다 앉아서 은혜를 같이 받습니다. 비가 심하게 올 때에 우산을 써도 물이 튀는 것처럼 은혜를 안 받으려고 애를 써도 은혜가 넘치는 교회에 앉아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의 분위기에 은혜를 같이 받게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약속된 말씀을 듣고 듣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될 자리에 있었지만 베드로는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날 말씀

을 듣는 사람은 많으나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고 그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좇아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못합니다. 가롯 유다도 일찍부터 자기의 동전 보따리를 뒤쪽으로 돌려놓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으로 출발했을런지 모르나 베드로는 처음부터 당신뿐이로소이다 하고 따라왔지만 베드로도 세 번 씩이나 부인하는 비참한 자리에 떨어졌습니다.

유명한 설교가 스필존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위대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할 바에는 차라리 죽는 편이 훨씬 낫다"

허기지게 인생을 살다가 눈에 보이는 어떤

나, 이제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고 이제는 주님 앞에 헌신자가 되었고 이제는 바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너희가 아니냐. 아직도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나를 떠나려고 하는가"

장망성을 떠나는 기독교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조금 기둥이 된 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다 보아서 안됩니다. 뒤를 돌아보는 날은 망하게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떠난 옛 것을 그리워할 필요도 없고 사모할 이유도 없습니다. "너희는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이미 주님 앞에 왔는데 너희가 다시 옛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안에서 은혜받고 그 은혜 지킬 줄 알아야"

돌아가기를 원하느냐." 아니다.

(3) 세상 이데올로기를 따라 갈 수는 없다.

이데올로기라는 말은 이디아, '생각' '논리' 라는 말로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각자의 주장이 꼭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은 이데올로기를 다 세워놓는데 그 이데올로기는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은 맑스 레닌과 같은 사람이 생각해 낸 하나의 이데올로기입니다. 자본주의라는 것도 하나의 이데올로기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이데올로기들이

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are mine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인을 쳐 주다. 꿈쩍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그런데 나를 따라오는 것이 괴롭나를 떠나려느냐." 안타깝게 묻고 계다.

우리는 이데올로기를 따라갈 수도 도덕을 따라갈 수도 없고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동으로도 못하고 서로도 못하고 북으로도 못하고 아래로 떨어지면 지옥에 우리가 갈 곳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만 좇아갈 길 밖에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2. 뉘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주님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계시때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주님께 완전히 붙었습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도망가려고 사날개를 타고 주님이 바다결에 와계시니 갈 수 없습니다. 주님손에 완전히 붙잡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되었다 발의 뜻을 몇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다른 곳으로는 갈 수가 없다 뜻입니다.

주님 외에 갈 곳이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한국의 가정제도가 참 잘 되었습니다. 가사직을 갔으면 그 집에서 죽을까를 하됩니다. 자주 뒤를 쳐다보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자비부르심을 받고 주님과 연합하였으면 주님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질문을 받때 주님이 부엌을 밟고 계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둘째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죽을 하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것은 초등학교입니다.

셋째로,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였다는 뜻입니다(69절). '내가 주님을 떠나는 것은 자살 행위요 나 자신에 대한 정하지 못한 소치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만길로 갈 수 없다는 단호신앙고백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미래가 약속되고 엄청난 번영이 있을 터인데 지갑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왔다갔다 한다고 그것을 따라가안됩니다.

귀를 잡으려면 뉘를 만들고 귀를 초청하 위해 향기로운 약을 묻혀서 가뉘 놓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죽을 줄 알고 몇번이나 왔다다하다가 결국 못참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덤석하다가 걸립니다. 인생들이 꼭 그와 같습니다. 죄를 먹을까 말까 하다가 결국 밭에 걸립니다.

우리 앞에 엄청난 모든 것이 다 놓여진 해도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권리를 배신할 수 없습니다. 역경과 핍박, 손해가 와도 진리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뉘게로 가오리까?

좋은 것, 잘못된 판단 때문에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떠날 바에는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다는 것입니다.

요한 복음 6장을 읽게 되면 예수님을 따라왔던 유대인들이 범한 과오 세가지가 크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로, 물질주의에 빠졌습니다(26절), 떡이나 먹으려고 좇아 다녔습니다.

둘째로, 사업주의, 행사주의에 빠졌습니다(27, 28절).

셋째로, 이적주의에 빠졌습니다(30절). 기사보기를 원하고 표적 나타나기만을 바라

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유대인들도 일찌기 물질주의에 빠졌고 눈에 보이는 장식하고 놀라게 하는 행사주의에 빠졌고 결국은 이적을 보기를 즐거워하다가 주님이 자기들이 기대하던 분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을 때에 유감없이 떠나가 헌신처럼 버린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2)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너희가 가왕에 출발하여 옛사람의 생활을 떠나서 나를 따라 온 이 마당에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우리의 과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가득 채워졌던 삶입니다. 우리의 죄는 술취함, 간음, 도적질, 살인, 미움, 거짓말, 속임, 불의, 자기중심, 교만, 수군수군하는 일, 시기, 헐뜯는 일,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 열거한 모든 것보다 더 크고 무서운 죄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충한 죄, 하나님 앞에 불의한 죄, 이런 옛생활을 떠난지 오래 되지 않았느냐

여기 저기 내려 있습니다.

기독교를, 신앙을, 성경을 이데올로기화하면 큰일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누가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데올로기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너희가 세상의 이데올로기를 좇아 다시 그런 곳으로 흘러가기를 원하느냐"

과학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가 우리를 영원한 자유자로 만들수는 없습니다. 경제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거짓 종교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과학이나 정치나 경제나 철학이나 외형적인 종교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들이 만들어 놓은 이데올로기로서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허탄한 것 밖에 없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데올로기 같은 것을 따라가려느냐 죽으려 가려느냐. 주님의 반문하는 음성입니다.

(4) 도덕주의를 따라갈 수 없다.

'떨기 전에 따라갔던 인간의 도덕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처럼 너희도 도덕따라, 윤리따라 가려느냐. 그것 제대로 잘 지켜 구원 받겠다고 도덕주의자로 다시 전락하려느냐' 예수님을 피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시편 139편 7-10절 말씀에서 시인은 "주님을 떠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만 보나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좋아도 싫어도 뱉 수 없이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생각은 꿈에도 해서는 안됩니다

‘89년 충현제자훈련 모두 끝나

식분자 및 평신도 등 3,539명 수료

지난 9월7일부터 실시되었던 89년도 충현 제자훈련이 지난 11월27일로 12차에 걸쳐 모두 끝났다.

이번 제자훈련에는 교역자·장로·안수집사·권사·남·여서리집사·권찰·교사·찬양대원, 그리고 90년도 신입 임직자 및 평신도 등 모두 3,539명이 수료했다.

바울4지회 산북교회 도와

남전도회 바울4지회(회장: 이하영집사)는 경기도 안성군 일죽면 소재 산북교회(담임: 안병삼목사)를 돕기로 하고 지난 11월 23일 지원금을 전했다.

그동안 산북교회는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려오던 중 우선 가건물 교회당을 신축하여 이전축하예배도 함께 드렸다.

동 축하예배엔 전도위원회 김경철장로, 강협장로, 바울4지회장 이하영집사가 참석했다.



▲ 신축가건물 예배당 앞에서 산북교회 시무목사와 함께 기념촬영

새 가정부에서 받은 은혜

〈편집자주〉 다음 글은 지난 11월 19일 새가정부가 주최한 가정문예 발표에서 최우수작품상을 받은 내용이다.

내가 새 가정부에 참석하게 된 것은 불과 몇 개월 밖에 되지 않는다.

결혼식 때 새 가정부에서 보낸 결혼 축하카드를 받고 남편과 함께 참석하고 싶었으나 남편이 직전부 교사로 활동하기 때문에 시간이 도무지 맞질 않아 혼자 망설이고 있던 중 지난 번 36주년 기념행사 중의 하나인 성경 암송대회를 계기로 남편의 권유에 의해 힘을 얻고 참석하게 되었다.

나는 오랫동안 시골 조그마한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자와 중·고등부 교사로 봉사하다 결혼 후에 남편을 따라 충현교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매 주마다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해야하는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지만 남편의 교회활동을 돕고 또한 내 자신의 보다 나은 신앙 생활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며 생활하고 있다.

처음 새 가정부에 참석했을 때는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떠드는 소리에 주의가 산만하여 메시지를 주의깊게 들을 수 없어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갔는데 몇 번 참석하다 보니 재롱부리는 아이들과 부부들이 함께 참석하여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럽고 새 가정부에서만이 찾아볼 수 있는 독특한 모습에 매료되었다.

또한 새 가정부 주보를 처음 받아본 순간 제일 먼저 눈에 와 닿는 것은 “예수 안에서

11월 성례식 거행 학습등 105명에게 수세

교회는 지난 11월 22일 수요일에 1, 2부 예배시에 이종운 위임목사 집례로 성례식을 거행했다.

11월중 학습자는 남여 47명, 세례는 39명, 유아세례 11명, 입교 7명, 개종 1명 등 총 105명이다.

계간“충현” 가을호 특집 선교활동 자세히 다뤄

계간충현 가을호가 발행되었다.

이번 가을호에는 이종운 위임목사의 「진실과 허실」이란 제목의 메시지를 비롯하여 김창인 원로목사의 시편강해, 특집 선교는 단, 실제, 좌담회 등이 폭넓게 다루어졌다.

또 특집으로 로잔대회 낭독문, 그리고 북한 선교 세미나에서 강의되었던 설교, 주제발표 등도 실렸다.

그 이외도 새로 부임한 세분 목사들의 탐방기사, 신앙편지, 신앙간증, 건강코너, 용어해설, 추천도서 내용 등이 짜임새있게 게재되었다.

새가족부 집회시간 변경 지난 12일 주일부터 2부로

새가족부(전 새신자부) 집회시간이 2부로 진행된다.

1부는 오전 11시~12시, 2부는 오후1시부터 2시20분으로 변경되어 집회를 갖는다.



▲ 목회자 세미나 3학기 종강파티

카메라 초점



▲ 발인예배시 가운을 입고 찬양하고 있는 11교구 찬양대원들

되어 잠깐 여기 소개하고자 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제 아기를 위하여 건강을 허락하시사 순산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로 참 어머니의 진정한 준비를 갖추게 하소서

제 마음 속의 모든 의심과 걱정을 제거하여 주시고

제게서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없이하시라 형성되고 있는 저 어린 마음이 위태로운

아이들과 부부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 너무 자연스러워 있었던 은혜를 재충전받는 기회를 갖게돼

새로운 은혜가 될 뿐 아니라 결혼생활 경험이 부족한 내게 무엇보다 많은 유익과 공감을 주는 시간은 공과공부 시간이다. 지금까지 머리로만 알았던 성경말씀이 하나의 육신이 되어 생활 속에서의 구체적인 경험들, 즉, 고부간의 갈등,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의 문제 등을 서로 나눔으로써 잃었던 은혜를 재충전받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아주 귀중한 시간인데 너무나 짧은 것이 아쉽기만 하다. 그때 그때 배운 것들을 직접 생활에 적용해 보려고 마음 먹어도 남편과 떨어져 지내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안타까운 점이 많다. 방학이 되면 지금까지 남편에게 잘못해 주었던 것을 더욱 잘 해주고 싶다. 그리고 하루속히 직장문제가 해결되어 주 안에서 온전한 가정생활과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것이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다.

이제 내년 봄이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데 「한 임신부의 기도」를 읽고 은혜가

이 세상에서 용감하고 정정당당한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기가 제 품에 안기어 제게서 젖을 빨아 살아갈때 그리고 그 두 눈으로 내 눈을 쳐다보며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려 할 때,

제게서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을,

부끄러움이 아니라 진리를,

미움이 아니라 삶과 죽음같이 강한 사랑을,

그 아이가 찾아볼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제 아기로 하여금 저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아이에게 뛰어난 재능을 주십시오 기도하기보다,

제게 주신 이 모성애가 제게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제가 낳는 이 아이가 사는 동안 언제나 그 영혼 속에 어머니의 처소가 될 한 은밀한 전당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에게 깨끗한 마음과 온화하고 자유의 영혼을 허락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 어린 아이에게 당신께서 어떤 재능과 은혜를 베푸시었는지 제가 열심히 찾아내어 그들을 최대로 발전시키는데 제 정성을 다할 것을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저는 아기의 개성을 존중하겠습니다.

이제 아버지,

제 손을 잡고 당신 손 사이에 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당신의 뜻에 따라 제게 정상적인 아기를 허락하여 주시며, 저로 하여금 정상적인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 정 선 (새가정부 사랑2반)

상담실 상담역 정소영씨 부임

교회는 상담실 전문상담역을 담당할 정소영(50세)씨를 초빙했다.

정소영 상담역은 이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보스턴 대학교에서 카운셀링을 전공했으며, 하버드대학교 섬머스쿨에서 여성심리, 여성과 정신건강학을 수학했다.

또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학박사를 취득했다.

11교구 찬양대 활동개시 교구내의 각종행사에 참여

11교구(교구장: 김은호장로, 지도: 김익성 목사, 최명자전도사)는 자체 찬양대를 구성하여 교구내의 모든 행사에 참여하여 성도간의 교제와 위로에 한몫을 담당하고 있다.

마리아와 에스더 여전도회 회원들이 주축이 된 동교구 찬양대(대장: 강동화집사)는 매월 1회씩 찬양연습을 하면서 교구내의 장례가정을 방문 찬양으로 위로하는 일, 갖가지 교구내 행사 등에서 찬양을 담당케 된다.

이들의 첫번째 봉사는 지난 11월 29일 설관호 안수집사의 발인예배시 찬양이었다. 동찬양대의 지휘자는 김광혜 집사, 반주는 한금자 집사이다.(사진은 카메라초점을 참조)

용산국제합창단 성탄축하 음악회

외국인으로 구성된 용산국제합창단 성탄축하 음악회가 오는 13일(수요일) 오후7시 본교회 본당에서 개최된다.

이날 진행될 순서는 1부 예배(설교/이종운 목사), 2부 합창 및 오케스트라 연주(74분

간), 3부 친교의 순서로 리셉션이 있다.

찬양대원 추가임명 20명 당회승인 받아

예배위원회 산하 찬양대의 찬양대원 추가임명이 당회의 승인을 받았다.

▲ 임마누엘(2명)

이병택, 남승락(베이스)

▲ 할렐루야(9명)

공인화, 정득실, 최수미, 박경연, 김선옥, 박은조, 유성희, 김성미, 최경재(엘토)

▲ 아멘(9명)

김국명, 권현숙, 현명진(소프라노), 엄유선, 이경의, 오명주, 박정숙, 신인숙(엘토), 조필근(베이스)

구청직원 복음화에 열심 성북구 로고스회 매주집회

성북구청에 속한 직원들 중 기독교 신자로 구성된 로고스회(총무/이기택 집사)는 매주 1회씩 동구청 강당에서 직원예배를 드리고 있다.

지난 11월 28일에는 본교회 교구위원회 지도인 이세열목사를 초청하여 예배를 드렸는데, 구청내 직원복음화에 한몫을 담당하고

있다.

동로고스회 회원은 현재 40여명이다.



▲ 성북구 로고스회 회원들의 직장예배 광경(이세열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신앙공포

약 먹기

시골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약을 제때에 먹지 않는다고 아내는 성화를 부린다. 처음에는 귀찮게 느껴졌던 성화가 그리 싫지 아니하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성화를 부릴까? 나더러 건강하게 오래 살라는 뜻인것 같은데 과부되

기 싫다는 뜻인가? 아이들의 교육에 유익이 되라는 뜻인가?

하나님께서 "그 성화는 주를 위한 것이라"고 웃으시며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내 아내도 "이 성화는 주를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본다.

박 홍 규 <소년부 교사>

구역예배를 위한

충현다락방

1989년 12월 8일(금)

교구위원회 제공

제49과 종말론적인 삶

성경: 벰전 4:7-11

요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벰전 4:10)

찬송: 231, 233장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은 철저한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말세가 다가오니까 모든 생활을 팽개쳐 버리고 예배당에만 모여서 기도 와 성경공부 그리고 예배만 드리자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2가지 유형의 종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주적 종말입니다. 이것을 예수께서 다시 오시고 역사가 마지막 말을 내리는 마지막 날을 뜻합니다. 또,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이 개인적 종말은 연기 시킬수도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 날은 누구나 맞이할 것입니다.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외엔 아무도 그날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종말론적인 삶은 어떤 자세이어야 하는가?

1. 종말론적인 신앙과 기도

이 마지막 날을 앞두고 "기도하라!" 왜 기도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의 마지막때는 혼란과 사기, 공포 불안 곳곳에서의 난리, 흉악의 모습이 어지럽혀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 특히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지혜가 참된 지혜입니다. 그래서 약 1:5의 말씀처럼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보다 더 복받을 기도제목은 없습니다.

수없이 부딪히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생의 질문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무릎 꿇는 모습 만큼 시급하고 우선적인 것은 없습니다.

2. 종말론적인 신앙과 사랑

"무엇보다도 열심히 사랑 할지니" 무엇보다도 열심히 사랑하라는 마지막때의 명령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 열심히 라는 단어는 본래 운동선수가 달려가서 목표앞에 서서 팔을 쭉

뻗어서 그 목표를 붙잡는 모습을 가르킬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사랑의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성경 최대의 계명(막 12:30-31, 요 13:34)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삶일까요? 성경의 사랑은 추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본문에는 3가지로 그 내용을 제시합니다.

(1) 사랑은 허다한 자를 담는다

(2) 너희가 사랑하므로 서로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상대방을 위해서 봉사하라.

(3) 서로 사랑할지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없이 하고 서로 봉사하라.

결국 우리가 바르게 생존하기 위해서는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 기호위에 "서로"를 향한 구체적인 땀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3. 종말론적인 신앙과 봉사

어떻게 봉사하는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라"입니다. 또한 10절에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청지기는 자기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단지 관리자일 뿐입니다. 모든 봉사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할 뿐이지, 자기 생색내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하라"

결 론

마지막을 생각하는 사람의 생애만이 진지한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후회없는 내일을 위해서는 오늘 나는 어떻게 살것인가? 충실한 오늘 한 날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내일을 약속합니다.

함께 생각합시다.

1. 진정한 종말의 제사는 무엇입니까?

2. 나 자신은 영원한 내세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3. 나 개인이 신앙적인 약점을 어떻게 보완 할것인가?

공동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더욱 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혼란한 시대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서로를 사랑하는데 열심을 다하게 하시며, 맡게된 영적인 직분을 소중히 알아 장차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자의 심령으로 오늘을 충실히 사는 선한 청지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